

예수님을 만나다: 천국의 왕국

서론: 재판을 받는 예수

누가는 예수의 이야기를 다시 전하기 위해 제시된 목격자 기록 모음을 제공합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우리는 예수의 생애 마지막에 만난 만남을 살펴볼 것입니다. 제이미 목사는 다음 주에 십자가 처형에 대해 이야기 하지만, 오늘은 예수님을 인도한 가짜 재판을 살펴보겠습니다.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에.

예수가 처형되기 몇 시간 전에 그는 가장 강력한 두 사람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역-갈릴리 분봉왕 헤롯과 유대 총독 빌라도

지역의 강력한 종교 단체인 산헤드린과 유대인 대제사장.

때때로 재판이 뉴스의 첫 페이지에 나옵니다(Brown v Board of Ed. Roe v Wade.

짐머만. 리텐하우스. 1월 6일 등). 모든 시선이 그 장면에 고정됩니다.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누가 기소될 것인가? 사건을 뒤집기 위해 더 중요한 증거가 나타날까요?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그들이 유죄로 밝혀지면? 무죄 판결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건이 시사하는 바는 무엇인가 우리의 미래를 위해?

부활절 이야기를 기억한다면 다음 중 한 구절이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예수님에게] 당신만 모르십니까?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일입니까?”

1세기 예루살렘에 "입소문" 같은 것이 있었다면 이 이야기는 유행이었습니다.

1번. 로마는 많은 사람들을 십자가형으로 처형했지만, 예수에게 일어난 일은 분명히 다릅니다.

도시의 모든 눈과 귀가 그것에 맞춰졌습니다. 대부분의 역사가들은 추정합니다.

200,000 - 100만 명의 사람들이 유월절을 위해 도시에 모였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확증하라! 예루살렘 성은 이음새가 터질 것이며

이 모든 사람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 일시적으로 성벽 바깥으로 확장합니다.

유월절은 예루살렘에서 격동의 시기였습니다.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의 억압, 외세의 압제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있는 경우

로마, 압제적인 제국으로부터 억압받는 종족의 해방을 축하하는 휴일

전환 1: 오늘은 예수의 재판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놀라운 대결을 볼 것입니다

이 세상 제국의 대표자들과... 만물의 정당한 왕 예수 사이에.

성경 누가복음 23장...

MVMT 1: "영원한" 로마 왕국(누가 23:1)

그러자 온 우리가 일어나 그를 빌라도에게 끌고 갔다. -누가복음 23:1

왜 예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제국 모두에게 그토록 위협이 되는가?

로마국에?

본문을 계속 읽기 전에 이러한 중요한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그것은 저에게 생각나게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연구할 때 중요한 역학이 있습니다. 중 하나

우리가 묻는 첫 번째 질문은 "그들에게 어떤 의미였습니까?"입니다. 그 질문에 답할 수 있게 되면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와 같은 순서로.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데 있어 자주 출발하는 지점입니다.

이 시리즈는 목격자의 기록을 조사하고 질문을 던지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이 경험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사람들에게 무엇을 제안했을까요?

그때(이름 없는 군중과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

이러한 질문에 답하면 그들의 맥락과 우리의 맥락 사이의 격차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로마의 초강대국

로마는 세계적인 초강대국이었습니다. 그것은 이집트, 아시리아,

페르시아, 바빌로니아, 그리스 등 강국들...

그리고 넘어집니다(대부분 같은 몇 가지 이유로 모두).

로마는 영원한 제국으로 여겨졌다. *Imperium sine fine*이라는 라틴어 문구가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끝이 없는 제국"). 이 문구는 시간도,

공간은 로마 제국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멸망하지 않을 제국으로 생각됩니다. 그것은 로마는 그들의 최고 신인 주피터에 의해 시작되었다고 믿었기 때문에 정복할 신성한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 범위는 천문학적이었습니다.

이들은 거주 가능하고 비옥한 땅덩어리입니다. 천연자원이 풍부하고

무역 기회이고, 이 땅은 모든 제국과 마찬가지로 정복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전쟁에 굴복했습니다.

로마가 승자였습니다.

로마가 이 정도 규모의 제국으로 통합되기 전에 로마는 1세기 동안

내전 - 100년의 유혈 사태. 그렇다면 옥타비우스나 시저 아우구투스 (그가 나중에 왕관을 썼을 때)

마침내 모든 경쟁자를 제거하고 권력을 강화함으로써 100년 전쟁을 끝냈습니다.

100년 간의 내전을 경험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은 아무것도 몰랐던 여러 세대입니다.

끊임없는 전쟁의 위협. 내전 동안 유대 민족은 우파의 편에 섰습니다.

로마(결국 승리할 로마)와 제국에서 특별한 특권이 주어집니다. 그들

를 금하고 종교법, 그리고 그들만의 "꼭두각시 왕"도 있습니다(나중에 그를 만날 것입니다. 그의 이름은 헤롯). 이 승리한 쪽은 결국 아우구스투스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아우구스투스는 내전을 끝냈고 사람들은 기뻐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시저가

"세상의 구원자." Virgil과 Horace와 같은 시인들은 이 왕이

뉴에라, "리던트 Saturnia regna"-즉, 2세기 만에 처음으로

전쟁은 성전의 문을 닫았고 로마 평화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Agustus는 Pax Romana 또는 로마 평화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호레이스는 그렇게 노래했다

아우구스투스는 "안키세스와 비너스의 아들", 즉 신들의 아들이었다.

그의 시대에... 아우구스투스는...

세상의 구원자

신들의 아들

그의 왕권은 로마 평화의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알렸다

영원한 로마 제국의

다시 말하면 천국이 도래한 것은 세상의 구세주 아들이

신들의,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왕국은 완전히 새로운 평화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왜 예수가 로마에 그토록 위협이 되었는지 물었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놀라운 방식으로 다시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모든 것이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야기의 맥락을 제공합니다.

왜 예수가 종교 기득권층에 그토록 위협이 되었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1절로 돌아가서 “온 회중”이라고 읽는 것은 종교 지배 계급을 가리킨다.

로마 통치 하에서 기능하도록 허용되었습니다. 그들은 그들만의 유형의 사생활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한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는 법에 따라 처벌을 수행할 수 없었습니다.

사형.

종교적 폭력

종교 지도자들은 한동안 예수님을 위해 그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권력에 대한 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그들의 전술은 영감을 줄 거짓 혐의를 날조하는 것입니다.

로마는 사형을 집행합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그들도 로마를 경멸하고 왕이 내부에서 일어나기를 갈망했기 때문입니다.

가짜 종교 재판에서 예수는 다니엘 7장을 인용하고 자신이 인자라고 주장합니다. 그만큼

그 예언의 성취. 예수님은 재판을 받고 계시며 거짓말을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재판 중에 그는 말하고 그들은 분노합니다.

70 그들이 모두 “그러면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오?”

그가 대답했습니다.

71 그들이 말하였다. “증언이 더 필요합니까? 우리는 그의 말을 들었다.

자신의 입술.”

그것은 신성 모독입니다. 예수는 자신이 신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들에게... 신성 모독자는 죽어 마땅합니다.

“종교의 역사에서 너무나 자주 사람들은 생명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을 죽이고

평강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을 벌였고 사랑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미움을 받았으나

자비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잔인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때로는 사람들의 아우성 아래서 거의 들리지 않는 고요하고 작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자신을 대변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럴 때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은 내 이름으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Rabbi Johnathan Saks, Not in God's Name

전환: 종교 지도자들은 로마의 방식을 받아들이고
그들이 사람들을 가리키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하는 신의 길.

MVMT 2: 예수의 재판(누가복음 23:2-12)

요한복음은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의 의식적 순결에 너무도 관심이 있어서 그들이
빌라도의 공간에 들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아이러니를 생각해 보십시오.

DA Carson은 이렇게 말합니다.

부정하여 유월절 제사를 먹게 하려 함이니라

참 유월절이신 분의 죽음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들은 종교의 외부 요소를 우선시하고 더 중요한 내부 요소를 무시합니다.

정의, 자비, 은혜, 사랑의 실재.

종교의 움직임은 우리를 하나님의 더 심오하고 더 중요한 것들에 더 가까이 데려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대리자가 아닙니다.

종교에 헌신하고 예수님을 그리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를 수행하는 방법의 예

그리고 그것이 여기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2절

2 그들이 고발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민족을 미혹하는 것을 보노라

그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을 반대하고 자신이 왕인 메시아라고 주장합니다.”

이들은 세 가지 날조 혐의입니다.

시저Caesar에게 세금을 내지 말라고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

시저 , 그리고 신은 신입니다).

그는 국가를 전복시키기 위해 폭력적인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왕권을 주장하셨지만 그들은 반쪽짜리 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절반의
진실은 거짓말입니다.

그들은 그를 카이사르의 물리적 라이벌로 제시합니다.

로마 총독은 세 가지 직업을 가졌습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평화를 유지하고 로마법을 집행하며 세금을 징수하십시오.

유대인 지도자들은 이것을 알고 행동을 강요하려고 합니다.

빌라도는 처음에 미끼를 물지 않습니다.

3 빌라도가 예수님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그렇게 말하였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4 이에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이 사람을 상대로.”

5 그들이 말하되 그가 그의 가르침으로 온 유대 백성을 소동하게 하니 그는 시작했다 갈릴래아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6 빌라도는 이 말을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고 물었다. **7** 그가 예수님이 헤롯의 관할 아래 있으니 헤롯에게 보내니 헤롯이 그 때에 예루살렘에 있더라 시간.

헤롯은 로마 치하의 유대인 꼭두각시 왕임을 기억하십시오.

세례 요한의 목을 베고 사도행전에서 갑자기 죽게 된 이유는 그가 자신도 신이라고 주장한다.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아무런 죄가 없음을 분명히 합니다. 그는 결백합니다. 그러나 그는 합격 책임.

예수님을 만난 것에 대한 그의 반응은 비겁하고 무관심했습니다.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지키려는 욕망을 중심으로 한다. 그게 더 중요해 옳은 일을 하는 것보다 그게 더 중요하게 생각

8 헤롯이 예수를 보고 심히 기뻐하니 이는 그가 오랫동안

그를보고 싶어. 그에 대해 들은 바에 따르면 그는 그가

일종의 징조. **9** 그가 그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하였으나 예수께서는 대답하지 않으셨다.

10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힘차게 거기 서서

그를 고발합니다. **11** 이에 헤롯과 그의 군사들이 그를 비웃고 희롱하더라. 그를 드레싱

우아한 옷을 입은 그들은 그를 빌라도에게 돌려보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헤롯의 반응은 조롱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약하고 무력한 왕국으로 간주하는 것을 위해.

그는 그를 싸구려 트릭을 제공하는 마술사로 본다.

12 그날 헤롯과 빌라도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얻어야 할 정치적 포인트가 있었다. 라이벌은 친구가 됩니다.

무관심

비겁함(비용이 들 수 있음)

조롱

복수

폭행

재판 중에 예수님을 본 사람들의 반응은 이렇하다.

오늘날 많은 반응이 남아 있습니다.

주제 전환: 예수께서는 그러한 어둠에 어떻게 반응하실 것입니까?

MVMT 3: 예수의 영원한 왕국(요한 18:36-40)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중요한 이 시련을 또 한 번 엿볼 수 있게 해줍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부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대조적인 하늘나라를 제안하십니다.

빌라도는 그에게 그가 왕이냐고 묻습니다. 예수님께서서 대답하십니다.

36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랬다면 내 종들은

내가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체포되는 것을 막으십시오. 그러나 이제 내 왕국은 다른 곳에서 왔습니다.”

37 “그렇다면 당신은 왕이십니까!” 빌라도가 말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네가 내가 왕이라고 하는구나. 사실 내가 태어나고 들어온 이유는

세상은 진리를 증언해야 합니다. 진리의 편에 있는 사람은 모두 내 말을 듣습니다.”

38 “진리가 무엇입니까?” 빌라도를 반박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그는 모인 유대인들에게 다시 나갔다.

거기 가서 말하였다. **39** 그러나 그것은 나에게 당신의 관습입니다.

유월절에 한 죄수를 너희에게 놓아 주기를 원하노라 풀어줄까? 유대인의 왕?

40 그들은 “아니요, 그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바라바를 주십시오!” 이제 바라바는 붓기.

예수님은 자신이 진리의 근원이라고 주장합니다.

제국은 주저합니다. 그들은 내러티브를 제어합니다.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제국의 권세를 초월하는 것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진리는 죽음 앞에서도 이긴다.

빌라도는 여전히 예수의 결백을 선언합니다.

이건 중요하다. 빌라도와 헤롯은 예수의 결백을 선언하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그가 유죄라고 거짓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에는 죄수를 놓아주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로마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정치적 움직임.

바라바는 폭도였습니다. 그는 로마에 대한 물리적 반란을 주도하는 데 도움을 주었고,

그의 범죄에 대한 사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와는 달리 그의 혐의는 진짜입니다.

이 재판 내내 바라바는 보안이 철저한 내부 감방에 감금되어 있었습니다.

안토니아의 탑. 이 위치에서 그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일부만 들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27:21-25은 그분이 무엇을 하셨는지에 대한 몇 가지 유용한 관점을 제공합니다.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 빌라도: “둘 중에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21절)

■ 군중: “바라바!” (21절)

■ 빌라도: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라?” (22절)

■ 군중: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22절)

■ 빌라도: “왜요? 그가 무슨 범죄를 저질렀습니까?” (23절)

■ 군중: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23절)

■ 빌라도: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무죄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책임입니다.” (24절)

■ 군중: “그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25절)

바라바는 빌라도가 외치는 외로운 목소리를 들을 수 없었다고 가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감옥에서 떨어진 안뜰. 그가 무엇을 들었다고 가정하는 것도 안전합니다.

많은 군중이 큰 소리로 비명을 질렀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바라바Barabbas는 단지 들었을 것입니다.

“바라바 ...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 그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그가 이 말을 들었을 때 느꼈을 오한, 두려움, 식은 땀을 상상해 보십시오.

잠시 후 경비원이 자물쇠를 풀기 위해 감방에 접근했을 때

그가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갑자기 쇠도하는 충격과 들뜬 기분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가 석방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사람, 예수라는 이 사람은

그의 자리에서 죽는다. 그가 떠나면서 어떤 감정을 느꼈을지 상상이 가나요?

그날 감옥,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자가 이제 석방되었습니까?

바라바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육체를 취하셨다고 말할 수 있는 세상에서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장소.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적 자리를 대신하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이 죄 없는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나님의 의가 되라”(고후 5:21). 베드로는 “그가 친히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의 상처로 너는 고침을 받았다”(벧전 2:24).

주제 전환: “예수님에게 예”라고 말하는 것은 그분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응답: 어느 왕국을 따를 것인가?

두 왕과 두 왕국이 충돌합니다.

하늘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자.

다른 하나는 실제로 있습니다.

그들의 미덕과 가치는 충돌합니다.

폭력, 권력, 두려움을 통해 지배하고 통제하려고 합니다.

다른 하나는 자기 희생적인 사랑, 은혜, 용서를 통해 연합과 치유를 추구합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예수의 왕국과 이 세상의 왕국에서 사는 예